

동명불원은 12월 7일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깨달음 위한 도량 이룰 터”

동명불원 주지 승찬 스님 취임

부산 동명불원 주지에 승찬 스님이 취임했다. 승찬 스님은 “수행을 보다 강조해 정진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12월 7일 대웅전에서 신임주지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승찬 스님은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바꾸는 종교다. 진정한 기도 정진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위해 초기불교에 바탕을 둔 불교명상대학을 개설하고 대중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은 삼귀의 및 이력소개, 취임사 그리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재곤 신도회장은 “승찬 스님과 함께 교육과 봉사 그리고 포교에 우리 모두가 바른 원을 세우고 신심을 키워 나간다면 동명불원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승찬 스님은 범어사로 출가해 직지사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 받았다. 영천 고등사, 김해 이득사, 구미 문수사에서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봉사자, 대통령표창 수상

강부선 씨 17년간 재능기부 노력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 부설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강부선 씨〈사진〉가 12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된 ‘2018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 열린 행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대회를 통해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해왔다.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강부선 봉사자는 2001년부터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강 씨는 어르신 치매예방과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민센터서 뜨개질 강의 재능기부를 하고, 장애어르신 대상 발반사 요법 마사지,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서 활동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도 높이 평가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마음을 내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나와 내 주변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 손길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포교가 열쇠”

Interview

제11대 국제포교사회장 김성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 선종 종지 살아 있어
세계에 알릴 역할 맡아야
포교사 활동무대 확장 목표

“아시아 가운데 한국불교에 유일하게 선종이 살아 있고, 비구의 청정한 삶이 재현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국제포교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국제포교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성림 씨가 선출됐다. 12월 11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김 회장은 다른 불교국가를 돌아보고 귀국한 직후라 말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만난 불교문화와 국민들의 신심에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포교사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묻자 김 회장은 “사실 속이 탄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불교의 뛰어남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답답하다는 것이다.

“1995년도에 런던, 파리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모스코바까지 불교 현황이 궁금해 직접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이자 비구니였던 무진 스님을 만나 더욱 자세히 이야길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영국에는 한 마을에 사찰이 하나씩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국불교는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김 회장은 “한국불교 포교 조건은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웃국가에 비해 비교적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전하기 좋은 조건이란 뜻이다.

한국불교 전파와 외국인 포교를 위해 김 회장은 앞으로 △기존 국제포교사 회원 활동 강화 △인재 양성 △연등문화축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국제포교사는 2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휴면 자격증처럼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활동의 장을 넓히고 화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육 강화로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고 어린이 자타카 영어 암송대회를 통해 불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종교로 개종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자 외국인 노동자가 기독교로 개종 후 자국으로 돌아가 그 마을 전체를 기독교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법회를 지지하며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활동으로 친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김성림 회장의 국제포교 원력은 성철 스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1980년 성철 스님을 친견 후 절 수행을 시작했고, 참선 공부를 이어가며 매일 1000배 수행을 10년, 3000배 120일 정진을 회향하는 등 백련암과 해월정사에서 수행을 이어왔다. 수행으로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명 스님과 인연이 됐으며 국제포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원명 스님은 국제포교사회를 창건했으며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모스크바 달마사, 우크라이나 불심사, 키르키즈스탄 보리사, 방글라데시 원명사 건립 등 다양한 해외포교 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원명 스님의 국제포교 원력에 발맞췄으며 강화 연등국제선원 창건 주역이자 국제포교사회 부산지부 창립자다.

“율사 표상 가르침 되새기자”

동국대, 경산 스님 평전
12월 11일 봉정법회 봉행



정화불사의 주역이자 조계종과 동국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경산 스님의 평전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부처님께 봉정됐다.

동국대는 12월 11일 교내 정각원에서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경산 스님 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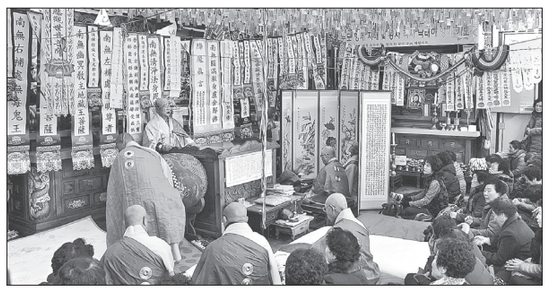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과 종단 안정, 도제 양성의 큰 기틀을 다진 경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선지식이 그리운 시대, 스님의 가르침이 종단 내외에 다시 큰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율사이자 선사이며 한국불교 정화의 기수 역할을 한 경산 스님의 고귀한 일대기 속 삶과 수행을 돌아보고 정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대종사의 가르침이 많은 대중에게 오롯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도 축사에서 “경산 스님이 마련한 토대 위에 동국대는 나날이 발전이 있다. 이번 평전을 계기로 경산 스님 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정읍 일광사, 100일 관음정진 입재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12월 7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100일간의 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승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육바라밀 불자의 신행생활을 완성하고 기도를 통해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량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광사는 개금불사회향을 맞아 100일간의 관세음보살 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연탄’ 소외된 이웃에

완주 송광사, 관내 5000장 연탄 나눔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2월 9일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비의 연탄 5천장을 완주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연탄 전달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상임위원회와 전북불교발전협의회, 박성일 완주군수 및 전주연탄은행 회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상락선원 봉덕동 이전법회

12월 9일, 고교생에게 장학금 전달도



대구 상락선원(선원장 혜문)은 12월 9일 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해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수도암 회주 원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 능화사 주지 혜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상락선원은 이 자리서 구암고교 등 학생 2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